




WORLDVIEW 지상강연

예수님과 법

이 글은 지난 6월22일 부여에서 열린 제5회 국제기독교대학학술대회에서 미국 페퍼다인 법학전문대학원 로버트 코크란(Robert Cochran Jr.) 교수의 발표문을 요약한 것이다. 코크란은 이 글을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세상에서의 법질서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날 우리의 실정법에 대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로버트 코크란(Robert F. Cochran Jr)은 미국 캘리포니아 말리부 소재 페퍼다인 대학교 로스쿨의 루이스 브랜다이스 석좌교수이다. 카슨-뉴만 칼리지를 졸업한 뒤 버지니아 주립대학에서 법학 학위를 받았으며, 로클러와 로펌 변호사 생활을 거쳐 1980년대 초부터 페퍼다인 로스쿨에서 법조윤리와 불법행위법 등을 가르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그는 기독교법가협회(Christian Legal Society)를 중심으로 기독교적 법이론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시작, 『Christian Perspectives on Legal Thought』 (Yale University Press, 2001) 등 다수의 기념비적인 저작을 편집하였다.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법·종교·윤리 연구소를 중심으로 기독교적 법률가운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매우 따뜻한 성품의 소유자로서 페퍼다인 로스쿨의 학생들은 그를 '가장 인기 많은 교수(The most beloved professor)'라 부르기도 한다.  번역 한정철

인간의 내적변화에 초점을 맞추다

예수님은 말씀 중에 법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하셨다. 하지만 그 중 많은 경우는 인간 삶과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이 의도한 바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법이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실정법에 별 관심이 없었고, 인간의 마음과 의지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셨다. 가령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누가복음 17장 21절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헌신은 인간 마음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그들은 법에 보다 순응하는 경향을 보임과 동시에 정의와 실정법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게 된다. 인간의 내적인 변화를 강조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치 활동을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이 우선 순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법을 외적으로 지키는 것보다는 주로 마음과 의지의 변화에 있다고 가르치신 것이다.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유대인들을 해방하여 세상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 산상설교에 잘 나타나 있듯이, 예수님은 마음에 기초한 왕국을 대비하셨다.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헌신은 인간 마음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이는 실정법보다 훨씬 더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선한 마음으로부터 선이 행해지면서 우리 행동이 바뀌어지기 때문이다. 마음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실정법에 보다 순응하는 경향을 보임과 동시에 정의와 실정법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게 된다. 세상 왕국이 아닌 인간의 내적인 변화를 강조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치 활동을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이 우선 순위인지 다시 한번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실정법의 한계

이에 반해 실정법은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그리 효과적인 수단이 되지 못한다. 특정 법규가 인간 행동을 제약할 수는 있겠지만 그로 인한 변화의 정도는 분명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오히려 실정법은 지나친 규율 때문에 종종 그 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결국 하나님의 가르침 중 가장 중요한 요소들인 정의와 사랑을 간과하게 된다. 실제로 예수님은 당시 실정법이 본래 목적을 잃고, 하나님의 법이나 천국에서의 삶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하셨다. 인간의 법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보다는 법 그 자체나 서기관들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이러한 실정법에 대한 비판은 21세기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불과 몇 년 전, 뉴욕 주택관리규정에 따라 마더 테레사 자선단체에서 운영하던 노숙자 보호소가 문

을 닫아야 했던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 장애인들을 위한 출입 설비 미비가 그 조치의 이유였다.

그래도 법을 통해 정의는 실현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영적인 변화에 좀더 관심을 가지셨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고, 삶에 진정한 의미를 주는 구원자로서 정의를 강조하셨다. 실정법의 의의는 여기에 있다. 하나님 나라에 법을 위한 장소가 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실정법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려고 할 것이고 그것이 정당하다. 주기도문에서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가르쳐주신 점이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 그 성경적 근거가 있다. 예수님의 나라가 근본적으로 마음의 변화에 의해 온다 하더라도, 법을 포함한 각종 제도를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삶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내면의 변화는 개인적인 일에 그치는 것만은 아니다. 개개인의 변화는 그들이 속한 사회를 변화시키며, 시민으로서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결국 그 사회가 정당한 법을 선택하고 적용하도록 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기여할 수 있다. 비록 완전한 형태는 아닐지라도 말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공권력 행사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예수님이 말씀한 정의로부터 공권력의 정당성을 찾아야 한다. 이는 법과 신앙을 이분적으로 생각한 마틴 루터 목사나 재침례교와는 다른 의견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는 현실 정치나 사법제도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물론 이때 법은 더 많은 선의 구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지나친 규제로 개인의 자유를 억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입법자

의 지혜가 요구된다.

법은 이웃사랑의 실천 수단

현대 실정법은 사회 정의를 위한 이웃 사랑의 실천 수단이 되어야 한다. 법은 인간을 위해 만들어 진 것이지, 인간이 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거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것에 대한 논쟁에서도 관련 법의 목적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의식에 관한 율법을 위반했다며 자신과 제자들을 비판하는 자들이 정작 그들의 나이든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였고, 십일조 등은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 신실함을 간과한 서기관들을 나무라셨다. 이는 실정법의 문언 보다는 그 법에 내재한 사랑과 정의의 정신을 강조한 것이다. 이와 같이 법 규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 해석되어야 한다.

정의 구현과 사랑의 실천

정의 구현이 사랑의 실천과 긴장 관계에 있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그 둘의 관계에 대해서도 다루어 보자.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자칫 사랑의 정신에 반할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할 수 있다. 가령 부를 배분할 때 사랑의 감정으로 어떤 이에게 그가 원하는 것을 모두 제공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줄 것이 없게 되고 이는 정의에 반하는 것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정의와 사랑은 상호 대립적인 것이 아니다. 사회적 존재인 우리 인간이 모든 관계된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오히려 정의는 어떤 집단의 결정권자에 의해 사랑이 표현되는 방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다루는 정의의 실현이 사랑의 실천과 접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정법의 현실적인 한계도 있다. 하나님의 법과 실정법 사이에 괴리가 있을 수 있으며, 그러한 괴리가 적어도 과거 모세의 시대에도 발견된다. 당시 괴리는 인간의 죄가 초래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일정 부분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유발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이혼의 경우, 모세는 그것이 두 생명간의 영원한 결합이라는 하나님의 본래 계획에 부합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혼을 허용하지 않으면 더 큰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음도 인식하였다. 그래서 이혼을 허용한 것이다. 현실에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이상을 어느 정도 희생시킨 것이다. 이 점은 오늘날 법률가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법질서를 통해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법률가들은 그러한 법규정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면밀히 살펴서 신중히 하나님의 이상에 접근해야 한다. 그러한 현실적인 고려를 수반하지 않고서는,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더 벗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과 관련한 예수님의 가르침도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주님이 의도하신 바를 찾고자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와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쉽지 않다.



하정철 현 백석대 법정경찰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으며 조지타운대학에서 법학석사(LLM), 에모리대학에서 법학박사(JD) 학위를 받았다. 뉴욕주 변호사로도 활동했다.